

제2의 퍼플섬 꿈꾼다...신안 '1섬 1뮤지엄' 속도

'김환기 생가' 안좌도 저수지에 '물 위에 뜬 미술관' 7월 개관 자은면엔 '인피니토 뮤지엄' 수국 공원에 문화시설 조성 등



김환기 화백의 생가 인근 신안군 안좌면 신촌저수지 위에 추진중인 '수상 미술관'이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전시관 7개 동 조감도(왼쪽)와 자은면에 조성되는 '인피니토 미술관' 조감도.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오는 7월 '물 위에 뜬 미술관'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면서 '1섬 1뮤지엄'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

군은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년) 화백의 생가가 있는 안좌면 신촌저수지에 약 1855㎡(561평) 규모 '플로팅 뮤지엄' (수상 미술관)을 지난 해부터 건립하고 있다.

신촌저수지 한가운데 떠 있을 이 미술관은 모두 7개 동의 전시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계적 작가인 야나기 유키노리가 참여한 이 미술관에서는 그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예일대학교 대학원 석사 출신인 조카가 야나기 유키노리는 '45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아페르토 부문 대상을 받아 이름을 알렸다.

정육면체(큐브) 외관이 인상적인 이 미술관은 1004개 섬을 아우른 신안의 하얀빛, 천일염을 연상 하도록 했다. 물에 반사된 빛이 4개 면에 투영되면



서 신비로운 조형미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관객들이 햇볕을 따라 전시관 내부에 마련된 미로를 따라가면서 체험형 관람을 할 수 있다.

신안군은 섬 곳곳에 하나의 예술 명소로 만들기 위해 '1도 1뮤지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상 미술관 외에도 인피니토 뮤지엄, 바다문화 시설, 대지의 문화시설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일원에 3513㎡ 규모로 조성될 인피니토 뮤지엄에 대해서는 현재 발

주 협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지난 2021년 말 스위스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곳에서는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프라텔리 로셀리 상을 받은 박은선 조각가의 대표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대지의 문화시설'은 수십만 수국이 흐드러진 도초면 지남리 공원 정상에 조성된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쉬며 사색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비금면 구림리 바다문화시설은 아름다운 원평해변 앞 바다의 움직임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조형물과 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의 1도 1뮤지엄 사업 공모에 세계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전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된 퍼플섬의 인기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상가 활성화 군수가 직접 챙긴다

군, 추진단 발대

영암군이 군 상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상가 활성화 추진단'을 발대했다.

영암군은 지난 1월 추진단 감담회를 개최해 주민과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단을 확대 위촉했으며, 영암군수를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모임으로 출범하게 됐다.

추진단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민 합의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 지역 맞춤형 사업 제안 등 지역사회의 현안과 다양한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지난 28일 회의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영암읍 상권 실태조사를 꼽으며 지역현황 파악을 통한 향후 발전방안 모색했다.

특히 영암읍 상가를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을 집중 논의했다.

추진단은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거주지, 운영형태, 운영방식,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 조사 등 다각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가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주민주도의 조합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자율상권조합 구성을 위한 사업 추진요건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 관광이 뜬다

전국 여행사 상품 출시 잇따라... '퍼플섬 효과' 온라인 상품만 60개

신안 퍼플섬이 관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지역의 관광지를 찾는 전국 여행사들의 상품 출시도 쏟아지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흑산-홍도 중심의 10여 개에 불과했던 지역의 여행상품이 불과 1-2년 사이에 주요 검색사이트 온라인 상품으로만 6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또 안좌면의 '퍼플섬'과 증도면의 '순례자의 섬'은 20개 여행사에서 25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신안의 관광이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퍼플섬이 한 몫하고 있다.

퍼플섬의 경우 관광객이 2021년 28만명에서

2022년 38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 관광 정보지식시스템에 집계된 전국 주요 관광지점당 평균 관광객 11만명과 제주도 주요관광지 평균 23만명을 상회했다.

또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선정한 외국인 대상 2021년 우수 여행상품으로 '아름다운 섬티아고

섬여행 2박 3일'이, 내국인 대상 국내 우수 여행상품에 '1004섬 신안군, 컬러풀 섬투어 5일' 등 7개가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 여행사의 'KTX 다도해 신안-섬티아고 & 증도 & 퍼플섬 트레킹' 투어가 130만원의 고급상품으로 12월 4차까지 출시될 정도로 신안

강소형 잠재 관광지 매년 한국관광공사가 광역별로 한 곳씩 선정해 여행코스 개발과 상품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과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군 관련 여행상품은 인기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형 잠재적 관광지로 '도초 환상의 정원'을 선정했다 각 섬마다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새단장' 목포근대역사관 2관 재개관

노후화된 내부 바닥·가벽 등 보수 일제수탈·근현대 사료사진 등 전시

목포시가 지난 2006년 개관한 이후 16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된 목포근대역사관 2관을 새단장해 재개관했다.

목포근대역사관 2관은 1920년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로 건축돼 일제 식민지 수탈의 상징으로, 해방 후에는 조선해안경비대, 해군에서 사용하다 빈 건물로 남아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시민들의 반대로 보존된 건물은 1999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은 후 2006년부터 목포근대역사관으로 개관, 각종 근대사진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포시는 휴관기간 동안 노후된 내부 바닥과 가벽 등을 보수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조기 등을 신선했다.

또한 목포근대역사관 2관 건물 변천사에 맞춰 1층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과 역할, 조선인에 대한 횡포와 그에 따른 저항, 해방 후 조선해안경비대와 해군에서 사용한 사진 등을 전시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조선총독부제작 저울'과 '토지측량기'가 전시됐으며, 해군목포경비부 깃발과 사진 전시를 통해 목포가 가진 근현대문화



목포근대역사관.

를 확인할 수 있다. 2층은 캐릭터와 영상그래픽 등으로 표현된 목포와 인근 사람들의 저항에 대한 내용이 전시된다.

동학부터 부두 노동운동, 1919년 4.8 만세운동, 항일학생운동, 암태도 소작쟁의와 노동자 파업, 현대에 이르는 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목포와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 후 재개관한 목포근대역사관 2관은 관람객들에게 일제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모습 등 목포근대역사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남미남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4연패'

해남군의 대표축제인 '해남미남(味南) 축제'가 4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한국의 지역축제를 세계에 알리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발굴, 시상해 오고 있다.

올 해로 11회째를 맞은 콘텐츠대상은 1·2차 서류심사를 거쳐 교수와 축제 감독, 언론인 등 60여 명의 전문가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한다.

해남미남축제는 해남의 풍부한 농수산물을 이용한 해남만의 특색있는 먹거리 축제로 지난 2019년부터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된 지난해 축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농수산물 등 대표 자원을 홍보하는 읍면 페어리드와 배추, 쌀,

김 등 해남의 대표 농수산물을 활용한 세계인과 함께하는 515 김치비빔, 2022 닭장떡국 나눔 등 음식 퍼포먼스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또 아름다운 두륜산 단풍과 국화향연으로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가운데 타 축제와는 차별화된 먹거리 축제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16만 5000여 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해남미남축제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축제 운영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올해도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토요민속여행 4일 개막

진도북놀이·남도잡가·강강술래 등

진도군이 올해로 27년째를 맞은 진도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을 4일 개막한다.

'세나래'란 주제로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제 제8호로 지정된 강강술래, 무형문화제 제34호 남도잡가, 무형문화제 제18호 진도북놀이, 거문고 산조, 살풀이, 사방놀이, 웃다리풍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김종삼·박종숙(강강술래 예능보유자)과 강강술래보존회, 강송대(남도잡가 예능보유자)와 남도잡가 보존회의 초청공연도 함께 열린다.

진도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은 지난 1997년 시작해 27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

친정엄마 되어주고 건강검진 해주고 완도군 다문화가정 행복지수 높인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건강 검진 비용, 다국어 번역기,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완도군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 및 군정 방침인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 교육, 심리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도군에 사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리고 있다.

군은 올해 1억7800만원을 들여 다문화가족 건

강 검진 비용·다국어 번역기 지원, 결혼 이민자는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친정 나들이 지원, 국적 취득 비용·행복 정착 지원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는 1가구당 250만원 이내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며 국적 취득 비용은 1인당 30만원의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도 지원한다.

또 완도군은 총 11억8000만원을 투입해 가족 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등 15개 사업을 지원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이달까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영광군은 이달까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다.

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한다.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노력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안 하기 ▲농촌 불법 소각 금지 ▲폐기물 배출 줄이기 ▲에너지 절약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기 등이 있다.

영광군은 최근 우체국 앞 사거리부터 터미널까지 구간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



영광군 직원들이 최근 터미널 인근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것을 지역민들에게 홍보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관계자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서울·인천·경기지역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하면 카메라 단속을 통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요령과 배출 저감 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중윤 기자 jlyee@